

정치적 목적으로 박영효가 망명지에서 펴낸 《조선삼대시》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의 고서들 — 4

허경진 | 연세대 국문과 교수

《조선삼대시》는 박영효가 갑신정변에서 실패한 후 망명지 일본에서 간행한 우리나라 시선집이다. 문학에 조예가 깊지도 않았던 그가 이 책을 엮어 간행한 데는 정치적 동기가 깔려 있었다. 그는 조선에 있는 고종과 수구파 권력자들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선전해 혁명가적 인상을 씻어보려 했던 것이다.

《조선삼대시(朝鮮三代詩)》는 박영효가 일본 망명시절인 1887년 9월 김고우도(金港堂)에서 간행한 우리나라 시선집인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소개되지 않은 책이다.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에서 1960년 5월 14일에 이 책을 구입해 소장하고 있다. 이 책은 신라·고려·조선 삼대의 시를 모아 엮었기 때문에 ‘조선삼대시’라 이름지었다. 앞부분에 3편의 머리말이 실려 있고, 39장의 본문이 권 구분 없이 편집돼 있다. 오언고시 2수, 칠언고시 6수, 오언절구 40수, 칠언절구 130수, 오언율시 14수, 칠언율시 65수 순으로 함께 257수가 실려 있다.

첫번째 머리말 <조선국시서(朝鮮國詩序)〉는 당시 도쿄에 와 있던 청나라 사람 장자방(張滋昉)이 1887년 단오일에 썼다. 같은 제목의 두번째 머리말은 일본인 후지카와 타다유(藤川忠猷)가 썼고, 세번째 머리말은 야마모토 마사요시(山本正義)가 6월에 썼다.

본문 첫줄 아래쪽에 “열수(洌水) 일사(逸士) 호선(瓠船) 박영효 집(輯)”이라고 편자를 밝혔다. 서울을 ‘열수’라고 쓴 것도 특이하고, ‘물혀 사는 선비’라고 한 것도 의미 있지만, 자신의 호를 ‘호선(瓠船)’이라고 한 것도 뜻이 있다. 조선국의 부마가 조각배를 타고 외국에 망명해서 숨어 지낸다는 분위기를 암시한 것이다.

박영효가 망명생활 중에 간행해

박영효(1861~1939)는 12세에 철종의 무남독녀 영혜옹주와 가례를 올리고 부마가 됐다. 그러나 몇 달도 못돼 영혜옹주는 세상을 떠났으며, 박영효는 국법상 재혼하지 못하고 평생 혼자 살았다. 그는 자기를 천거한 박규수의 재동 집에 드나들며 개화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의 사랑방에서 김옥균·홍영식·서광범 등의 개화파 청년들을 알게 됐다.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화를 추진할 수 없자 사대파를 무력으로 타도할 계획을 세웠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창설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지만, 청나라 군사가 수

구파를 지원하고 일본 군사가 계획대로 협조하지 않아 개화파 정권은 3일천하로 끝났다.

그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했으며, 야마자키 나가 하루(山崎永春)로 이름을 고친 뒤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에 입학했다. 1887년 8월 25일에 판권면허가 나오고 9월에 출판된 것으로 볼 때, 《조선삼대시》는 이 무렵의 망명생활 중에 엮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에 조예가 깊지도 않았던 그가 이 책을 엮어 간행한 이유는 그 뒤의 행동과도 관계가 있다. 그는 이 책이 간행된 지 넉 달 뒤인 1888년 정월 23일에 고종에게 올릴 1만3천자나 되는 장문의 상소문을 작성했다.

정치적 의도에서 왕실과 충신들의 시 많이 뽑아

그는 이 상소문에 응답이 없자 1891년 2월 19일에 대원군 앞으로 친필 편지를 보내면서, 《효충경(孝忠經)》 1천6백부를 조정의 여러 인사들에게 나눠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고종에게 상소문을 올리 기 넉달 전에 《조선삼대시》를 간행한 것이나, 대원군에게 편지를 올리면서 《효충경》 1천6백부를 보낸 것은 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갑신정변이 실패한 뒤에 일본에 망명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고종에게 사면을 청하며, 조선으로 돌아와 다시 정권에 참여할 뜻을 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갑신정변의 주동자였던 자신의 혁명가적인 인상을 충성되고 효성스러운 인물로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칠언절구편에는 임금 4명, 왕족 3명, 부마 2명의 시가 실렸다. 왕족이나 부마는 그 봉호를 밝혀, 다른 시인들과 구분했다. 왕실이나 부마를 강조한 것은 부마인 자신의 신분을 독자들에게 다시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 등의 사육신 이름 앞에다 ‘충신’임을 밝혔는데, 시의 수준을 떠나서 모두 한 수씩 실었다. <조의제문> 때문에 연산군에게 부관참시당한 김종직도 충신으로 기록했다.

조선 중기의 시인들을 신다가 끝부분에 갑자기 박영효 자신의 시 <오가사와라로 가는 친구 김옥균에게 지어주다(贈友金玉均于小笠原島)>를 실었다. 일본에서도 외딴 섬 오가사와라로 유배돼 떠나는 김옥균을 위로하는 시를 보여서 자신들에게 동정심을 일으키려 한 것이다. 김옥균은 1886년 8월에 유배됐으니, 이 책을 엮기 몇 달 전에 지은 시다. 별로 뛰어나지도 않은 이 시를 실어 독자들에게 보이려 한 것이 이 책을 엮은 의도 가운데 하나다.

조선시대 시선집 가운데 대표적인 책은 남용익이 엮은 《기아(箕雅)》다. 《기아》 칠언절구에 많이 실린 시인을 시대순으로 소개하면 신광한(18수), 임 제(7수), 이 행(8수), 김안국(7수), 박 순(10수), 이항복(6수), 이산해(10수), 최경창(14수), 백광훈(9수), 이 달(17수), 신 흠(6수), 이정구(6수), 이수광(6수), 권 필(10수), 이안눌(9수), 이명한(12수), 정두경(12수) 등인데, 박영효는 이 가운데 임

제 · 이 행 · 김안국 · 박 순 · 신 흠 · 이정구 · 정두경의 시를 한 수도 신지 않았다. 이항복 · 이산해 · 최경창 · 이 달 · 이수광 · 이안눌의 시는 《기아》에 실리지 않은 시를 1수씩 실었으며, 신광한 · 백광훈 · 권 필 · 이명한의 시만 1수씩 실었다. 우리나라 칠언절구 가운데 대표작이라고 하는 정지상의 <대동강>도 신지 않았으니, 그가 작품 위주로 이 책을 엮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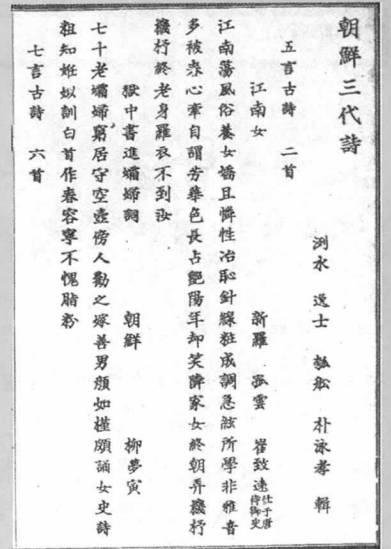
《조선삼대시》에 실린 시들에서 당 · 송 · 원 · 명 · 청 · 일본 등 외국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벼슬했거나 그 나라 사신들과 주고받은 시, 또는 사신으로 가는 친지를 전송하는 시들이 많이 실렸다. 그는 이런 선정에서도 개화파에 속한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다. 자신이 일본 세력을 등에 업고 활동하는 것을 정당화한 셈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 보면, 그가 《조선삼대시》를 엮은 이유는 일본의 문인 독자들에게 조선의 시를 알리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조선에 있는 고종과 수구파 권력자들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선전해 갑신정변에 참가한 혁명가의 인상을 씻어보려는 점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끝내 충신이 되지 못해

후지카와 타다유는 서문에서 박영효가 고국을 걱정하는 뜻이 깊어 이 책을 엮었다고 했다. “충신이 나라를 걱정하며 조국을 바라보는 마음은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다(忠臣憂國, 望魏之情, 古今無異矣)”고 해 그를 조선의 충신으로 인정했으며, 뒷날 조선이 세계 5대주의 형세를 제대로 살피 조정의 여론이 바뀌면 그가 금의환향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기대했다.

야마모토 마사요시는 “시를 읊으면 그 나라의 국정을 알 수 있으니, 기격(氣格)을 버리고 문장의 잘잘못(工拙)만 논하는 것은 옛스럽지 않다”고 하면서, 박영효가 충효의 시를 주로 고른 것에 대해 변명했다. 한 나라의 부마인 충신 박영효가 국론과 맞지 않아 일본까지 망명해와서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엮었다고 밝혔다. 박영효가 시를 선정한 기준이 ‘수사지공졸’(修辭之工拙)에

박영효가 엮은 《조선삼대시》는 신라 · 고려 · 조선의 시를 모은 것으로, 이 책을 펴낸 데는 문학적 의도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담겨 있었다. 사진은 《조선삼대시》의 본문.



있지 않은 것을 밝혀서, 시 자체보다도 정치적인 의도로 이 책을 엮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1894년 일제에 의해 내정개혁이 시작되자, 그는 10년간의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그해 7월 인천에 들어왔다. 고종이 8월 4일에 그의 반역죄를 사면하자, 박영효는 그해 12월 제2차 김홍집 내각에 내무 대신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그는 1895년 7월에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고 다시 일본으로 망명했다. 7월 6일 야간 각의에서 그에게 체포령이 내려지자, 그는 수행원 20명을 데리고 7월 7일 새벽에 서울을 빠져나와 일본행 배를 탔다. 그는 제2차 망명생활 중에도 꾸준히 상소해 자신의 역모혐의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고종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본국에 밀파돼 있던 이규완 일파에게 1900년 7월 의화군 강(牆)을 국왕으로 추대해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음모도 사전에 발각돼, 그는 권석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조선삼대시》와 《효충경》으로 충성스러운 선비의 모습을 인식시키려고 애썼지만, 그는 끝내 전통적인 충신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